

노인시설 내 공간영역의 통합과 분리측면에서 본 환경적 프라이버시

The Environmental Privacy on the Perspective of Integration and Segregation of Spatial Areas in Facilities for the Elderly

이 민 아*
Lee, Min-A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privacy on the perspective of integration and segregation of spatial areas in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rough investigating required environmental privacy at each hierarchical space, the contextual situation and counterplan for the privacy. For the study, a content analysis for 35 foreign academic journal articles published from 1990 to August of 2013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ur hierarchical spaces had somewhat integrated characteristics as being required various types of privacy beyond the original features of each space. Especially semi-public and public spaces were needed the privacy similar to in private or semi-private areas. Second, the contextual situation for the privacy was mainly from undesirable access and psychological pressure of other residents, staff and etc. to the residents' personal space, stuff, and behaviors. The other was from no space (no sitting) or no equipments for privacy. Third, the counterplan for privacy was categorized as improvements of physical environments and making defensible space or keeping physical distance of the elderly. It is suggested that welfare of the aged act in Korea about the room capacity for the elderly facilities needs to be reconsidered for the privacy in their individual rooms and the privacy in semi-public and public area must be considered to make the behavior scope of the elderly extended.

Keywords : Environmental Privacy, Facilities for the Elderly, Spatial Integration, Spatial Segregation

주요어 : 환경적 프라이버시, 노인시설, 공간의 통합, 공간의 분리

I. 서론

프라이버시(Privacy)는 공공으로부터의 격리, 배제, 박탈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privatus*와 *privo*를 어원으로 두고 있으며(Applegate & Morse, 1994; Leino-Kilpi et al., 2001), 초기 연구에는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의 고립과 도피 등의 성격에 초점을 두었으나 다양한 연구가 거듭되어 오면서 다른 사람의 접근에 대한 조절과 통제, 자기 노출에 대한 선택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Kong, 2012).

프라이버시는 사회의 주도적인 문화규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과 맥락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Applegate & Morse, 1994). 특히, 노인

시설은 사회의 주도적인 문화규범에서 예외적인 환경에 속하며 일반적으로는 수용되지 않는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이 노인시설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Applegate & Morse, 1994). 즉,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프라이버시는 안전이나 치유라는 명목 하에 하위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너싱홈 거주노인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저항을 보이며(McColgan, 2005), 알츠하이머 투병중인 노인에게 충분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영역이 제공될 경우 걱정과 불안증세가 감소되고 신체의 욕시토신 생산이 활발해 진다는 연구(Zeisel, 2005)의 결과들은 시설에서 거주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시설의 프라이버시 계획을 위해서는 공간 내 프라이버시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Nord, 2011b). Wilcocks, Peace & Kellaher(1987, cited in Nord, 2011b, p. 938)는 노인시설 내 모든 공간이 가지고 있는 사적, 공적인 성격이 서로 어떻게 통합되고 분리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노인시설에서 공적인 공간은 항상 프라이버시와 거리가 먼 활동만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실에서 사적인 상황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희원(주저자, 교신저자), 국립군산대학교 주거 및 실내계획학과 교수, 이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Min-Ah Lee,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Kunsan Natl. Univ., 558 Daehark-ro, Gunsan, Jeonbuk, 573-701, Korea. E-mail: leema@kunsan.ac.kr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주거학회의 추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공간별 점진적 프라이버시가 아닌 시설의 전체 공간에 걸쳐 요구되는 거주노인의 프라이버시를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노인시설의 프라이버시를 다룬 연구는 대부분 프라이버시를 치유환경을 위한 개선 및 평가도구나 거주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언급하였고(Oh, 2000; Cho, 2010), 개인실의 프라이버시와 공유공간의 영역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였으며(Bang, 2002; Choi, 2011), 직원측면에서 케어 환경의 질을 논하거나(Chung, 2008), 공간의 위계와 함께 프라이버시의 점진적 과정을 다룬 경우가 있었다(Min, 2005; Jo, 2013).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국내 노인시설의 다인실 문화와 케어의 질이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노인시설 내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맥락적 상황보다는 디자인지침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었고, 공간의 계획은 거주노인을 중심으로 한 프라이버시보다는 치유환경의 조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시설 거주노인의 환경적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두고 각 위계적 공간의 프라이버시 상황과 맥락을 연구한 외국의 학술논문을 고찰하여 내용분석한 뒤 노인시설 내의 환경적 프라이버시가 각 공간 영역별로 어떻게 통합되고 분리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내 노인시설 거주노인의 프라이버시 증진을 위한 기초정보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 고찰

1.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속성

Altman(1975)은 프라이버시를 주변을 둘러싼 경계의 침범에 대해 조절을 하는 과정으로 보았고, 고립이나 과밀과 같은 불균형 상황에서는 영역성, 개인적 공간, 언어적·비언어적 행태에 의한 조절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Nord(2011b)은 프라이버시를 불편한 관심으로부터 회피,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Applegate & Morse(1994)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프라이버시의 형태를 들었다: 다른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상태를 뜻하는 은둔(Solitude), 공공의 집단 속에서 관심의 대상이나 주목을 받지 않는 상태인 익명(Anonymity), 원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쌓는 유보(Reserve), 그리고 개인 몇몇이 사적관계를 가질 수 있는 친밀함(Intimacy). Newell(1995)은 여기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리(Isolation), 개방된 환경에서 프라이버시가 충족되는 판타지(Fantasy) 형태를 더하였고, 유보(Reserve)대신 개인정보의 비밀유지(Secrecy)를 넣었다. 최근 프라이버시는 단지 고립이나 타인으로부터의 회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의 조절과 통제, 선택, 개인의 정체성 성립 등이 강조되는 경향이다. Newell(1995)은 진정한 프라이

버시는 스스로 물리적 환경을 조직하여 상황을 선택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때 획득된다고 하였고, Street & Love(2005)와 Nord(2011b)도 타인의 부적절한 침범을 단절하는 것만이 프라이버시는 아니며,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과 접근 및 통제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하였다.

환경적 프라이버시는 사람들이 설정한 공간적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으로(Golant, 2011), 영역성(Territoriality) 및 개인적 공간(Personal space)과 같은 개념이 함께 설명되곤 한다(McLaughlin, Olson & White, 2008; Applegate & Morse, 1994). 영역성은 장소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권과 정체성, 더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계 체계를 규제하는 심리적, 인적관계의 과정을 말한다(Altman, 1975). 특히, 신체적 약자들은 영역성을 통해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자율성, 안전성, 자기정체성을 부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영역 침해에 더욱 민감한 경향이 있다(Edwards, 1998). 개인적 공간은 자기 자신만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신체적 능력이나 이동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개인적 공간이 넓어지게 된다(McLaughlin, Olson & White, 2008).

2. 노인시설의 공간영역과 프라이버시 특성

Howell(1980)은 주거환경을 개인의 접근과 활동 등의 패턴에 따라 공간의 4가지 영역, 즉 사적(private), 준사적(semi-private), 준공적(semi-public), 공적(public)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위계적 공간영역은 시설에 따라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2~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으나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계획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프라이버시는 사적에서 공적 공간으로 가면서 약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간영역의 세부 사례와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한편, 몇몇 연구자들은 노인시설에서 개인실이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고 반영구적인 점유공간으로 인식되어 높은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나(Altman, 1975), 개인실만으로 프라이버시나 집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는 없으며 공적인 공간에서도 일부 노인들을 위해 사적인 친목을 가질 수 있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조용한 장소의 계획이 필요하며, 청각적,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위한 물리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Choi, 2011; Nord, 2011b; Sheppard, 2009).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한 개인이 혼자 있고 싶다는 심리적 경계를 유지할 경우 방어적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는 거주노인이 시설을 집(Home)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McColgan, 2005). 또한 Newman(1978)은 준사적, 준공적 공간에서 방어적 공간이 부족할 경우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하여 노인시설의 개인실 외의 공간에서 프라이버시 확보를 강조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Each Hierarchical Space by Privacy Level

Examples		Characteristics
Private	Private bedroom	Exclusiveness, Solitude, Escaping from others, Access control
Semi-Private	Shared bedroom, Attached livingroom with bedroom, Corridor in front of the residence	Maintaining privacy + Ease up of solitude Intimate relationship, Private meeting
Semi-Public	Alcove, Courtyard, Atrium, Near fire place, Library Small spaces adjacent to larger rooms	Passive community Formal & Informal activity, interaction
Public	Lobby, Dining space, Activity space, Multi-purpose room, Recreational space	Public social contact, Large group activity

Source. Howell (1980), Kwon (2002), Chapman & Carder (2003)

III. 연구의 초점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초점

본 연구는 Wilcocks, Peace & Kellaher(1987, cited in Nord, 2011b, p. 938)가 노인시설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통합과 분리적 특성, 즉, 시설 내 공간들은 모두 사적 혹은 공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 프라이버시의 과정으로는 물리적 환경을 분석할 수 없다고 강조한 데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위계적 공간(사적, 준사적, 준공적, 공적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적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두고 그 형태와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맥락적 상황, 그리고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정리한 뒤 노인시설의 각 공간 영역들이 상호 통합, 분리되는 상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논문자료수집

본 연구는 외국학술논문의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해외학술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CINAHL(간호학분야), ScenceDirect(과학기술분야), SocINDEX(사회과학 분야)를 이용하여 1990년에서 2013년 8월까지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어는 “privacy”와 “personal space”, “territoriality”를 기본으로 하여 각각 그 뒤에 “and nursing(assisted living, residential care, 혹은 long term care)”를 붙여 검색하였다. 그 결과 1,200여편(중복포함)의 학술논문이 검색되었고, 1차로 신문, 잡지 등과 같이 학술논문집이 아닌 경우, 학술연구가 아닌 기사 및 기고문 형식의 글을 제외하였고, 2차로 각 논문의 초록을 고찰한 뒤 노인시설¹⁾과 관련이 없는 논문, 프라이버시의 대상이 거주노인이 아닌 연구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논문의 원문을 입수하여 시설 내의 물리적 환경, 특히, 각 공간 및 그 구성요소 측면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있는 논문만을 포함시켰고, 최종적으로 35편의 학술논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1) 본 연구에서는 노인주거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노인의료시설 등 거주, 장기요양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노인시설을 분석의 범위로 하였음을 밝힌다.

2) 분석 논문자료의 개요

분석에 이용된 연구논문의 조사방법, 조사대상, 그리고 주로 다루어진 공간영역을 연도별로 정리하였다<Table 2>. 35편 중 면접을 이용한 연구가 많았고(21편), 관찰 13편, 심층면접 6편, FGI 4편, 문헌고찰 3편, 서베이가 3편이었으며, 2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14편으로 많았다. 조사대상으로는 노인 거주자가 24편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 및 시설 운영자, 요양사는 21편, 가족원은 9편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을 거주자와 직원, 거주자 및 가족원, 혹은 직원 및 가족원 등 2그룹 이상으로 한 연구는 17편에 이르렀다. 35편 중 21편이 개인거주실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4편은 공적, 4편은 준공적, 5편은 준사적, 9편은 모든 공간영역에 걸친 프라이버시를 연구하여 아직까지 노인시설의 프라이버시 연구는 개인 거주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크게 다른 점은 보이지 않았으나 노인시설의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개인공간이 아닌 준사적, 준공적, 공적 공간을 다룬 연구가 2005년 이후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IV. 결과분석

1. 사적 공간

노인시설에서 사적공간은 거주노인의 프라이버시 속성이 가장 뚜렷한 공간으로 1인실, 혹은 사적인 침실영역으로 보고 있다(Chapman & Carder, 2003; Woodhouse, 2006). 사적공간의 프라이버시를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다룬 대부분의 연구가 1인실과 다인실(2인실)의 비교를 다루었고, 출입과 접근의 통제 및 조절에 대해 논하였다.

1) 1인실-은둔(Solitude)의 권리

사적인 공간에서는 1인실의 여부가 집과 같은 환경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Woodhouse, 2006), 특히 배변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Benhov, 2008), 그리고 임종을 앞둔 노인의 경우가 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지되고 있다(Porock & Jurgens, 2009). 다인실에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2인실의 노인들은 상호간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는 다든지(Calkins & Cassella, 2007), 1인실의 노인들은 사

Table 2. *Outlines of the Articles for Analysis*

Year	Author(s)	Research Method	Research Subjects	Investigating Focus
1994	Applegate & Morse	Observation, Interview	Elderly, Staff	All areas
1995	Groger	Interview	Elderly	Private
1998	Higgs et al.	Survey	Elderly	Private, Semi-Private
1998	Edwards	Observation, Interview	Elderly, Staff	Private
1999	Bland	Mail Survey, In-depth	Family, Elderly/Staff	Private
2001	De Veer & Kerkstra	Interview	Elderly, Family	All areas
2001	Leino-Kilpi et al.	Literature Review	Research Articles	Private
2002	Morgan et al.	FGI	Staff	All areas
2002	Cuttler & Kane	Interview	Elderly	Private
2003	Chapman & Carder	In-depth Interview	Staff, Family	All areas
2004	Sandvide et al.	Telephone Interview	Staff	Private
2005	McKinley & Adler	FGI	Elderly	Private
2005	Street & Love	Interview	Staff	Private
2005	McColgan	Observation, Interview	Elderly	Semi-Private, Semi-Public, Public
2006	Salari et al.	Observation, Interview	Elderly	Public
2006	Cuttler et al.	Observation	Facilities	Private
2006	Woodhouse	Interview	Elderly, Staff	Private
2006	Leith	In-depth Interview	Elderly	Private
2007	Calkins & Cassella	Literature Review, Interview, FGI	Articles, Staff, Architects, Family, Elderly	Private
2008	Choi et al.	In-depth Interview	Elderly	Private
2008	McLaughlin et al.	Interview	Staff	Private
2009	Porock et al.	Observation, Interview	Staff	Private
2009	Cuttler & Kane	Physical Traces, Observation, Interview	Elderly, Staff, Family	All areas
2009	Morgan	Interview	Elderly, Family, Staff	Private
2009	Sheppard	Interview	Elderly, Staff	Private, Semi-Private, Semi-Public
2009	Torrington	FGI	Elderly, Staff	Semi-Private, Semi-Public
2010	Wiersman & Dupuis	Observation, In-depth	Elderly, Staff, Family	Private
2010	Weenig & Staats	Observation, Interview	Elderly	Semi-Public, Public
2011a	Nord	Observation, Interview	Elderly, Staff	Public
2011b	Nord	Observation, Interview	Elderly, Staff	All areas
2011	Golant	Literature Review	Articles	All areas
2011	Roth & Eckert	Observation, Interview	Elderly, Staff, Family	All areas
2012	Danes	Observation, Interview, Survey	Staff, Family	Private
2012	Fay & Owen	In-depth Interview	Staff	All areas
2013	Nord	Interview	Elderly	Private, Semi-Private

회적으로 고립되고 감각적 자극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Leino & et al., 2001) 등도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 거주자들은 좁더라도 홀로 있을 수 있는 1인실을 선호하며(Danes, 2012), 프라이버시 측면에서(Privacy level)에서 2인실은 욕실 및 화장실의 공유나, 시각적, 청각적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인해 이미 사적인 단계를 넘어선 준사적(semi-private)단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Chapman & Carder, 2003). 2인실을 최대한 사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출입과 시선의 분리를 통해 최대한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논점이 되는데, 벽이나 파티션, 옷장의 이용 및 침대의 재배치를 통한 시선의 분리, 창과 수납장 등의 공간과 설비의 조건을 동일하게 제공하면서 개인물품을 통해 장소의 점유를 표현하거나 마감재를 달리 할 경우 시각적 프라이버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Leino & et al., 2001; Cuttler & Kane, 2002; Cuttler & et al, 2006). 3인실 이상의 공간에서 프라이버시 계획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Cuttler & Kane, 2002) 실제로 서구의 모든 노인시설에서 국내와 같은 3인실 이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2) 출입과 접근 통제 및 조절

노인들은 노크, 응답 시까지의 대기과정을 통해 출입을 통제, 조절하거나, 본인의 허락 없이 개인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개인 소지품에 손대지 않는 것 등에 대한 권리 주장이 매우 강하며(Applegate & Morse, 1994; Mckinley & Adler, 2005), 이러한 환경통제의 가능성을 개인적인 독립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Leith, 2006). 그러나 노인케어를 위한 직원의 수시출입 및 무단출입과 질

환이 있는 다른 거주노인의 예상치 못한 침입, 문과 잠금 장치의 부재 등은 사적 공간을 공적으로 만들게 된다(Choi, Ranson & Wylie, 2008; Sheppard, 2009).

한편, Morgan(2009)의 연구에서 가족원들은 노인들이 열쇠를 관리 할 기능이 없으며 케어를 위한 수시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거주실의 출입통제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거주노인 스스로도 이동능력이나 건강에 대한 변화는 개인공간에 대한 침해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Edwards, 1998; Morgan, 2009) 향후 거주노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출입구에 작은 문이나 커튼을 덧달 경우 방문에서 거주노인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다른 거주노인의 침해를 유인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개인물품을 선반에 전시하여 노인들의 손이 닿지는 않지만 침대나 의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Cuttler & Kane, 2002). 화장실 사용의 경우 안전을 위해 직원의 보조가 필요하다면 용변 시 화장실의 바깥에 서 있는 등의 거리를 유지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바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 노인에게 자기노출의 선택을 위한 프라이버시를 지원할 수 있다(Bland, 1999; Morgan & et al., 2002; Wiersma & Dupuis, 2010).

2. 준사적 공간

준사적 공간은 개인 거주실에 부속된 소거실(Sitting area)이나 복도와 침대영역의 사이공간과 같은 장소로 시설에서 집과 같은 느낌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이 방문객이나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거나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McColgan, 2005), 관련 연구에서는 준사적 공간의 존재 여부가 프라이버시의 평가 지침으로 등장하곤 한다(Higgs, MacDonald & Ward, 1998; De Veer & Kerkstra, 2001). 거주실 내에 친밀한 교제를 위한 공간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방문자는 침대 외에 앉을만한 장소가 없게 되고(Roth & Eckert, 2011), 다른 거주노인이 잠시 방문하기에도 거주실 자체가 지나치게 사적인 성격만 남게 된다(Torrington, 2009).

기존 연구에서 준사적 공간의 프라이버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거주노인의 정체성 표현을 통해 사적영역의 경계에 대한 다른 사람의 침입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Morgan et al., 2002). 침실 주변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의자, 사진이나 추억거리를 두거나, 출입문 바깥쪽을 장식하여 제어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간혹 도난 및 분실문제로 인해 개인물품을 허락하지 않는 시설도 있으나(Chapman & Carder, 2003), 노인시설에서는 개인실과 그 주변이 지나치게 획일적인 배치로 이루어져(Nord, 2011b) 준사적 공간에서 정체성을 표현하여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거

주자와 가족원의 방문 시 이용하게 되는 거주실의 주변, 혹은 부속된 소거실(sitting area)이 노인의 개인적인 물품(사진, 가구, 장식품 등)으로 채워질 경우 침실영역보다 더 개인화되어 정체성이 표현될 수 있으며(Nord, 2011b, 2013),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되 사적영역 경계로의 침입은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3. 준공적 공간

준공적 공간은 일반 복도나 소그룹 거실, 2-3명을 위한 알코브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시설의 중심에서 다소 떨어진 것이 특징이다(Cuttler & Kane, 2009). 준공적 공간의 주요 역할은 거주노인의 소그룹 활동 및 비공식 상호작용으로 주변상황을 보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및 친지 방문 시 만남의 장소로 가장 인기가 높다(Chapman & Carder, 2003).

통제된 상호작용은 준공적 공간의 다양한 기능을 내포하는 대표적 프라이버시 형태로 Weenig & Staats(2010)에 의하면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가능성, 내 선택 하에 사람들과 같이 앉을 가능성, 홀로 앉을 수 있는 가능성, 다른 사람과 대화할 선택의 자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충분히 안 보일 수 있는 장소 등 5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있다. 즉, 주된 활동 공간과 거리가 있는 준공적 공간에서 개인이 원하는 형태의 프라이버시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Chapman & Carder, 2003)로 볼 수 있다.

또한 준공적 공간에서는 몇몇 거주노인이 모여 앉아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앉는 장소(sitting) (McColgan, 2005)와 침실로 돌아가지 않아도 평화와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직원이나 사람들의 간섭이나 시야에서 약간 벗어난 장소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Sheppard, 2009). 거주노인들이 생활하면서 스스로 만드는 공간(Vernacular space)이 성공적인 준공적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Roth & Eckert, 2011), 창이 있는 복도의 끝이나 테이블의 한쪽 구석, 건물의 뒤편 등이 좋은 예이다. 준공적 공간에서 노인들은 프라이버시의 확보를 위해 다른 것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심리적 경계를 표시하거나 방어적 공간을 형성하여 타인에게 혼자 있고 싶다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공간 내에 적합한 프라이버시 장소가 부재할 경우 사회적 활동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은 공유공간을 이용하지 않게 되고 개인 거주실에 머물게 된다(McColgan, 2005).

4. 공적 공간

공적 공간은 시설의 중앙 라운지, 식당, 레크레이션 실, 로비 등과 같이 거주노인들이 집단으로 모이거나 내외부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로 시설 정책에 의해 용도와 사용자가 제한된 경우가 많다. 사회화를 위해 계획된 공간에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Nord, 2011b), 모든 거주 노인들이 상

호작용을 위해 공적 공간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며, 접근과 통제에 대한 개인적 선택과 공간의 개별화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Nord, 2011ab; Roth & Eckert, 2011; Fay & Owen, 2012).

공적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버시는 시간, 장소, 행동 등에 대한 개인의 선택적 접근과 통제이다(Fay & Owen, 2012). 거주노인들은 공적 공간에 모습을 나타내도록 강요될 때,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며 친밀함을 나타내야 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압박에 대한 공간 전략으로 노인들이 공적 공간의 주변에 앉아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지켜보거나 주변 영역의 다른 사람과의 친밀성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McColgan, 2005; Nord, 2011ab).

공간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는 통제의 다른 형태로 공간 환경에 개인적 영역을 부여하는 것이다. 거주노인의 생활습관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적 공간에서는 활발한 공간이용을 위해 직원이 의도적으로 일정 장소에 개인적 영역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식사 공간의 자리배치가 대표적으로 노인들은 식사 때마다 같은 자리에 앉게 되면서 테이블에 개인적 영역을 형성하고(Cuttler & Kane, 2009; Nord, 2011a)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빈도나 시간을 증가시키게 된다. 반면, 공적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사적영역은 방어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이것이 침해될 때는 대부분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Salari, Brown & Eaton, 2006), 식당과 같은 경우 테이블을 공유하는 거주노인들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입주자나 외부인의 의도치 않은 영역 침해와 관련하여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Salari, Brown & Eaton, 2006; Golant, 2011)

5. 공간영역별 통합과 분리를 통한 환경적 프라이버시

앞장의 결과를 요약하여 각 공간별로 필요로 하는 프라이버시의 주요 형태와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맥락적 상황 및 확보 방안을 <Table 3>에 정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공간별 통합과 분리를 통한 노인시설의 환경적 프라이버시를 분석하였다.

사적 공간은 가장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인 은둔(Solitude)과 외부인의 출입과 접근의 통제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맥락적 상황으로 2인 이상의 공유침실에서 룸메이트가 존재할 경우 사적 공간은 준사적화(being semi-private) 되며, 문/잠금장치의 부재, 무단출입, 수시출입,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 및 허락 없이 개인물품에 손대는 것 등이 문제가 되면서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being public). 다른 공간과 비교하여 타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분석이 가장 많이 나타나, 상식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나 노인 시설의 특성상 개인실 프라이버시 관리에 많은 연구자를 비롯하여 거주자가 민감

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인실의 출입분리 및 시각적 차단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 및 정비, 설비의 설치사항 등 환경적 대응 방안이 주로 분석되었다.

준사적 공간은 지인과의 사적인 교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사적 공간과 구별되는 반면, 통제의 다른 형태인 개인적 정체성의 강화를 위해 출입문 앞에 특별한 장식을 하거나 실내에 개인 가구와 물품 등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적 공간으로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사적 공간과 비슷한 수준의 통합된 프라이버시 기능(being private)을 보여주게 된다. 여기에는 시설차원에서 개인물품의 반입을 허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획일적인 실내 설비, 친밀한 교제를 위한 여유 공간이나 앉을 장소가 마련되지 않는 등, 주로 취약한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맥락적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지속될 경우 준사적 공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시설의 획일적인 공간특성으로 인해 공적 영역의 성격을 띠게 된다(being public).

준공적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프라이버시는 그 형태는 물론 수준도 다양하였다. 준공적 공간은 소그룹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기능을 하며 다른 영역과 분리되지만, 한편 다른 사람의 관찰이나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나(being private), 지인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며, 때로는 개인의 선택을 전제로 하는 통제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면서(being semi-private) 사적, 준사적 성격과 통합되는 등 수준의 차이가 다양한 프라이버시가 요구되었다. 이와 관련된 맥락적 상황도 다양하게 나타나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거주실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경우,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나 친밀한 만남이 필요한 경우와 관련이 있었다. 다양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성격을 가진 장소가 준공적 공간에 충분히 배치되고 그 기능이 적합하게 수행될 경우, 노인들은 홀로 있기 위해 굳이 개인 거주실에 머무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 공간을 형성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반대로 이러한 장소가 부재할 경우 노인들은 개인 거주실에서 나오지 않게 되고 준공적 공간은 공동(空洞) 상태가 된다.

공적 공간은 시설 내외부의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공간이지만 필요로 하는 프라이버시의 형태는 준공적 공간보다 집약적이었다. 공간에 개인적 영역을 부여하여 주변을 통제하는 공간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는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being private)로 판단되며 Applegate & Morse(1994)가 언급한 프라이버시 형태 중 심리적 경계를 나타내는 유보(Reserve)에 해당한다. 개인의 선택을 전제로 한 접근 및 통제는 준공적 공간의 통제적 상호작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being semi-private) 보다 통제의 뉘앙스가 더 강하다. 이는 광범위한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일상을 영위하거나 단체 활동 참여에 대한 압박, 타인의 원치 않는 접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에 대한 반작용인 것으로 보

Table 3. Summary of this Study for Analysis of Spatial Integration & Segregation

	Private Space	Semi-Private Space	Semi-Public Space	Public Space
Higher Level Required Privacy ↑	Solitude			
	Entry & Access Control	Individual Identity (being private)	Being out of Other's view (being private)	Space individualization (being private)
Contextual Situation	Existence of roommate (being semi-private)	No permit for bring personal stuff	Not want to get back to individual room	Activities/eating with unfamiliar people
	No door & locks Trespassing Frequent in & out Undesirable disclosure (toileting, death, etc.) Touch of personal stuff (being public)	Uniform interior feature No sitting for intimacy (being public)	Undesirable attention No space or no sitting for being alone or intimacy	Pressure for participating social interaction Undesirable attention
Counter Plan for Privacy	Separation of entry Securing visual privacy by furniture arrangement Semi-opened feature: curtain/double door Using shelves for personal stuff display Safety feature for selective disclosure Keeping physical distance	Displaying personal stuff on the door or porch Room personalization Preparing sitting area	Preparing space free from people's view Preparing informal sitting space Encouraging vernacular space Defensible space (non-verbal expression)	Space individualization by environmental features Defensible space Keeping physical distance

인다. 공적 공간에서의 개별화된 공간은 주로 시설 차원에서 조성되는 성격이 있고, 프라이버시의 확보를 위해 노인들은 민감한 방어적 공간을 형성하거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준공적 및 공적 공간에서 요구되는 프라이버시는 시설의 일상을 위해 사적, 준사적 공간과 분리되고, 때로는 거주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면서 상황에 따라 사적, 준사적 공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시설의 위계적 공간별로 프라이버시의 형태와 발생 가능한 맥락적 환경을 외국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각 공간영역별로 프라이버시 수준이 상호간에 통합되고 분리되는 상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위계적 공간은 각각 다양한 프라이버시의 형태를 필요로 하면서 복합적인 프라이버시 수준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개의 공간영역은 각 위계적 특성에 맞는 공간간의 분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공간의 본래 성격을 넘어선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며 공간의 통합적 특성을 나타냈다. 거주 노인들은 준공적, 공적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상태, 친밀한 교제, 공간의 개별화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며 사적, 준사적 영역과의 통합적 특성을 나타냈고, 준사적 공간은 실의 개인화를 통한 개인적 정체성을 필요로 하면서 사적 성격을 보였다.

둘째,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는 맥락적 상황은 대부분 노인의 개인 공간, 영역, 물품, 행동, 상호 작용 등에 대

한 원치 않는 접근이나 간섭, 강요, 심리적 압박이 발생하는 경우였고, 해당 프라이버시를 수행할 적합한 공간과 물품, 설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사적 공간은 준사적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외부인의 무단출입, 획일적인 가구 및 설비배치, 개인물품의 반입금지 등이 지속되면서 사적, 준사적 공간은 공적 공간화 되는 특징이 있다.

셋째,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는 시설 혹은 거주노인 차원에서 물리적 환경을 정비, 개선하거나 프라이버시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과 노인들 스스로가 방어적 행동이나 거리 유지로 접근을 통제하는 방안이 있었다. 사적, 준사적, 공적 공간에서 시각적 프라이버시 확보와 시선차단, 공간의 개인화 및 개별화를 위한 물리적 환경 측면의 개선이 다루어졌고, 준사적, 준공적 공간에서 친밀한 교제 등을 위한 앉는 장소(sitting area)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노인 시설의 환경적 프라이버시 계획 측면에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노인시설의 개인 거주실은 최대 4인실로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4], 2014), 많은 시설이 2~4인실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노인시설에서 거주노인들은 사적영역의 프라이버시 보장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물리적 환경의 정비와 개선을 통해 사적영역 확보가 가능한 2인실을 이하를 권장하되 국내의 시설 상황을 반영하여 3인실 이상 다인실 계획 시 최대한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적, 준사적 공간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맥락적

상황은 공적 공간화 될 요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거주단위의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인지적으로 독립적인 노인은 출입의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간구획이나 설비배치의 작은 변화로 거주노인들이 침해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직원의 케어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출입의 통제는 완화되 개인실 내에서 개인의 존엄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즉, 안전에 있어서 위험을 피하기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각종 기술적 안전장치가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준공적 및 공적공간의 사적, 준사적 수준의 프라이버시 확보는 시설 내 노인의 행동반경을 넓혀주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직원의 관찰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거나, 계획단계에서 공간이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노인들이 공유 공간 내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장소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적 공간이 역동적이고 사회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거주노인들이 수용하지 않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공적 공간에 내재된 문제와 모호성을 파악하고 개인이 방문할 장소와 시간, 행동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공적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사용자가 정해져 있는 사적, 준사적 공간에 비해 준공적, 공적 공간은 프라이버시나 장소의 점유가 모호하고 상황 및 이용자의 기준에 따라 영역이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 간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공유공간에서 거주 노인들의 프라이버시 개별화를 통해 공유공간을 빈번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방안과 동시에 가구배치의 간헐적 변화나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유공간의 제공 등을 통해 지나친 영역 주장으로 다른 거주노인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시설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었던 노인시설의 환경적 프라이버시 관련 외국의 학술논문은 많은 부분에서 사적 공간의 프라이버시가 다루어졌고, 공유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는 최근에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 치였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노인시설에서 필요한 프라이버시 형태 및 맥락적 상황, 대응방안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향후 노인시설에서 요구되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과 국내 노인시설의 환경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국내 노인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 혹은 FGI 등을 통해 노인시설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현실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사회와 시설의 문화적 가치와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노인들의 개인적 특

성에도 영향을 받으며 인생에 걸쳐서 그 개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도 한다(Groger, 1995; Morgan, 2005). 이에, 일반 가정의 노인과 시설 거주노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노인의 태도와 시설의 문화 및 다른 거주노인의 특성과의 관계, 또는 환경적 프라이버시의 제공에 따른 거주노인의 심리와 행태 등의 세부적인 변화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측면에서 국내 노인시설에서 기존의 위계적 공간 계획에 대한 재고와 시설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연구의 방향선정에 기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REFERENCES

1. Altman, I. (1975).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Privacy, personal space, territory, and crowding*. Moterey, CA: Brooks/Cole.
2. Applegate, M. & Morse J.M. (1994). Personal privacy and interactional patterns in a nursing home. *Journal of Aging Studies*, 8(4), 413-434.
3. Bang, J. (2002). *A Study on the Design of Residential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Approached on Psychosocial Health Promotion*.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4. Benbow, B. (2008). Are facility design standards short-changing LTC residents? *Canadian Nursing Home*, 19(3), 19-24.
5. Calkins, M. & Cassella, C. (2007). Exploring the cost and value of private versus shared bedrooms in nursing homes. *The Gerontologist*, 47(2), 169-183.
6. Chapman, N.J. & Carder, P.C. (2003). Privacy needs when visiting a person with Alzheimer's disease: Family and staff expectations.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2(4), 506-522.
7. Cho, J.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Procedure for Therapeutic Environment in the Elderly Care Facility with Dementia*.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8. Choi, E. (2011). *A Study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Elderly Residential Environment Theory and the Actual Environment*.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9. Choi, N.G., Ranson, S. & Wylie, R.J. (2008). Depression in older nursing home residents: The influence of nursing home environmental stressors coping and acceptance of group and individual therapy. *Aging & Mental Health*, 12(5), 536-547.
10. Chung, M. (2008). *Improvement of Care Support Settings of Elderly Nursing Home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1. Cuttler, L.J. & Kane, R.A. (2002). Environments for privacy, safety and movement of persons with Dementia. *Alzheimer's Care Quarterly*, 3(1), 50-54
12. Cuttler, L.J., Kane, R.A., Degenholtz, H.B., Miller, M.J. & Grant L. (2006). Assessing and comparing physical environments for nursing home residents: Using new tools for greater research specificity. *The Gerontologists*, 46(1),

- 42-51.
13. Cuttler, L.J. & Kane, R.A. (2009). Post-occupancy evaluation of a transformed nursing home: The first four green house setting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3, 304-334.
 14. Danes, S. (2012). Design for dementia care: A retrospective look at the Woodsde place model.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6, 221-250.
 15. De Veer A.J.E. & Kerkstra, A. (2001). Feeling at home in nursing hom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5(3), 427-434.
 16. Edwards, S.C. (1998). An anthropological interpretation of nurses' and patients' perceptions of the use of space and tou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8(4), 809-817.
 17. Fay, R. & Owen, C. (2012). Home in the aged care institution: Authentic or ersatz.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35, 33-43.
 18. Golant, S.M. (2011). The quest for residential normalcy by older adults: Relocation but one pathway. *Journal of Aging Studies*, 25, 193-205.
 19. Groger, L. (1995). A nursing home can be a home. *Journal of Aging Studies*, 9(2), 137-153.
 20. Higgs, P.F.D., MacDonald, L.D., & Ward, M.C. (1992). Responses to the institution among elderly patients in hospital long-stay care. *Social Science & Medicine*, 35(3), 287-293.
 21. Howell, S.C. (1980). *Designing for Aging: Patterns of use*. MA: The MIT Press.
 22. Jo, S. (2013). *A Study on Obtaining Territoriality of Personal Space and the Vitalization of Social Space for the Improvement of Nursing Home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23. Kim, M. (2006).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about Leisure Space for Facilities for the Elderly*.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sangnamdo.
 24. Kong, M. (2012). *Design Methods of Territoriality and Privacy Domestic Townhouse*.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25. Kwon, S. (2002). A study on the hierarchical space organization of elderly 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34, 96-105.
 26. Leino-Kilpi, H., Valimaki, M., Dassen, T., Gasull, M., Lemonidou, C., Scott A & Arndt, M. (2001). Privacy: A review of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8, 663-671.
 27. Leith, K.H. (2006). "Home is where the heart is...or is it?" A phenomenological exploration of the meaning of home for older women in congregate housing. *Journal of Aging Studies*, 20, 317-333.
 28. McColgan, G. (2005). A place to sit: Resistance strategies used to create privacy and home by people with dementia.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34, 410-433.
 29. McKinley, K. & Adler, G. (2005). Quality of life in nursing homes: Involving elders in policy making for their own care and life satisfaction. *The Social Policy Journal*, 4(3/4), 37-51.
 30. McLaughlin, C., Olson, R. & White, M.J. (2008). Environmental issues in patient care management: Proxemics, personal space and territoriality. *Rehabilitation Nursing*, 33(4), 143-147, 177.
 31. Min, D. (2005). *A Study on the Community Space in the Skilled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People*.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32. Morgan, D.G., Semchuk, K.M., Stewart, N.J. & D'arcy, C. (2002). Th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of small rural nursing homes: Assessing supportiveness for residents with dementia. *Canadian Journal on Aging*, 22(3), 283-296.
 33. Morgan, L.A. (2009). Balancing safety and privacy: The case of room locks in assisted living.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3, 185-203.
 34. Newell, P.B. (1995). Perspectives on privac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5, 87-104.
 35. Newman, O. (1996). *Creating defensible spac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huduser.org/publications/pdf/def.pdf>.
 36. Nord, C. (2011a). Individual care and personal space in assisted living in Sweden. *Health & Place*, 17, 50-56.
 37. Nord, C. (2011b). Architectural space as a moulding factor of care practices and resident privacy in assisted living. *Aging & Society*, 31, 934-952.
 38. Nord, C. (2013). A day to be lived. Elderly people's possessions for everyday life in assisted living. *Journal of Aging Studies*, 27, 135-142.
 39. Oh, E.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rapeutic Quality of Architectural Environment and Behaviors of Elderly Persons with Dementia in Long-Term Care Setting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40. Porock, D., Pollock, K. & Jurgens F. (2009). Dying in public: The nature of dying in an acute hospital setting.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3, 10-28.
 41. Roth, E.G. & Eckert, J.K. (2011). The vernacular landscape of assisted living. *Journal of Aging Studies*, 25, 215-224.
 42. Salari, S., Brown, B.B. & Eaton, J. (2006). Conflicts, friendship cliques and territorial displays in senior center environments. *Journal of Aging Studies*, 20, 237-252.
 43. Sheppard, L.A. (2009). Privacy within aged care facilities. *Interne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Practice*, 10(2), 6
 44. Street, A.F. & Love, A. (2005). Dimensions of privacy in palliative care: Views of health professionals. *Social Science & Medicine*, 60, 1795-1804.
 45. Torrington, J. (2009). The design of technology and environments to support enjoyable activity for people with dementia. *Europe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3, 123-137.
 46. Weenig, M.W.H. & Staats, H. (2010). The impact of a refurbishment of two communal spaces in a care home on residents'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 542-552.
 47. Wiersma, E. & Dupuis, S.L. (2010). Becoming institutional bodies: Socialization into a long-term care home. *Journal of Aging Studies*, 24, 278-291.
 48. Woodhouse, M. (2006). Making a new home: The importance of a home-like setting in nursing home. *Sociological Viewpoints*, 103-110.
 49. Zeisel, J. (2005). Environment, neuroscience, and Alzheimer's disease. *Alzheimer's Care Quarterly*, 6(4), 273-279.

5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4).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http://2url.kr/adkw>

접수일(2014. 1. 26)
게재확정일자(2014. 3. 12)